

전남 최초 강진 K-POP콘서트 '대박'

서울 광주 대전 목포 등 전국 각지서 2만3천명 운집 관내 음식·숙박업소·상가·주요 관광지 '떠들썩'

전남 최초로 열린 강진 K-POP콘서트가 완전 대박을 터뜨렸다.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동안 강진군이 국비를 따내 개최한 '강진 K-POP M 슈퍼콘서트'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대전 등 충청권 광주·전남권에서 몰려든 2만3천명의 팬들 환호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며칠전부터, 현장에 매를 하기위해 전남 강진으로 온 팬과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혹은 10여명 이상 몰려다녀 강진 곳곳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가 하면, 공연장이 있는 강진종합운동장 근처에 마련된 힙터와 휴식공간, 가까이 있는 음식점과 상가를 찾는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번 콘서트를 만끽했다.

아프리카쪽에서 온 수백명의 한류 팬들도 함께 참여해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아이돌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함께 부르는 소위 '배창'으로 강진 가을밤을 노래했다. 이들이 흐르는 수만개의 형광봉은 하늘의 별, 무대 조명과 어울려 보는 이들을 황홀함에 젖게 했다.

가족단위로 온 팬들은 강진읍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일부는 강진농수특산물을 구입하며 '강진브랜드'를 미추했다. 군 단위 최초로 문화관광부 공모에 최종 확정돼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열린 이번 콘서트는 국내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멀리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T/F팀 사업현장 방문

목포시가 지난 19일 해상케이블카 개조에 대비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T/F)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유일산 하루 승강장 조성현장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관광, 교통, 도로, 도시경관 등 해상케이블카와 관련된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해상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 개발, 숙박시설 확충 방안, 야간 경관조명, 교통신호체계, 도로구조 개선 시설물 안전대책 등 개통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목포를 찾을 것에 대비해 사전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 중으로 사업, 관광, 도로, 교통 등 10개 분야 추진과제를 설정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T/F팀 총괄본부장인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은 "체류형 관광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해상케이블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단감 생산비절감 모델 개발 연시회 개최

단감 과원 생력화로 노동력 및 비용 39.2% 절감



영암군과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0일 영암군 덕진면 김태연 농가 포장에서 단감 생산비절감 모델화 사업 연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에는 전남지역 단감 재배농가 및 관계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하여 단감 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기술 현장시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금년에 추진한 단감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에는 과원 생력화 및 관수시설 개선 등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요인이 투입되었다.

수만명이 환호하고 이를 본 군민들, 그리고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하는 강진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행사를 적극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은 "직원들이 이번 강진 K-POP콘서트를 유치하기 위해 펼친 노력과 땀,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공연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수만명의 관람객이 강진으로 몰려오면서 강진이 이미지를 더욱 알릴 수 있게 국내 관광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공연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강진 K-POP콘서트는 한류대세인 워너원과 B.A.P, B1A4, 라붐, 소나무, 케이시, 미소 등이 출연한 가운데 두 시간동안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펼쳤다. 참여한 관람객들은 안전한 공연과 선진관광문화를 보이는 등 한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게 행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강진군청 직원들과 강진경찰서, 강진소방서, 관내 유관·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원활한 행사진행에 힘을 보탰다.

강진=최제영 기자



곡성군, 즉곡 반송 토란농장 팜파티 성황

농촌직거래 활성화 일환...광주 도시소비자 50명 초청

곡성군은 지난 20일 농촌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즉곡 반송 토란농장에서 광주 도시소비자 50명을 초청하여 토란 팜파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와 농촌의 정취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팜파티를 통해 토란 가공품 시식 등 농촌체험활동과 토란 밭을 배경으로 펼쳐진 작은 음악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가 결합된 것으로 농장주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지역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공연, 체험, 농산물 정제공 및 판매 등을 기획 연출하는 농가 기획형 행사이며, 농촌 체험관광에 파티 문화를 결합한 농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즉곡 반송 토란농장(대표 기록도)과 곡성군 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들이 참여하여 토란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 등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소비

자들은 체험을 통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농촌의 여유와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팜파티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겠다"며, "농촌의 여유와 문화도 즐기며, 질 좋고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 할 수 있는 팜파티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팜파티를 통하여 농촌문화 체험은 물론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농산물 판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오는 11월 11일 옥과 소룡리에서 사과 팜파티를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땅끝마을 매향 일출, 오는 25일부터 '장관'

해남 땅끝마을 관광의 백미로 꼽히는 매향 일출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땅끝 선착장 앞에 자리한 두 개의 섬인 매향 사이로 해가 뜨는 매향 일출의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다. 땅끝일출 예상 시간은 6시 45분 전후이다.

특히 매향 일출은 매년 2월과 10월, 일 년에 두 차례 연출되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을 비롯해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향 일출은 일년에 두 번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담아 일출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며, "올해 매향 일출 기간 중 날씨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돼 보기 드문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